숫자를 통해 대학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 그룹 대학평가 전문가!

전국대학평가 협의회 소개

중앙대학교 기획처 평가팀장
전국대학평가협의회장
신 재 영

우리는 흔히 통계학에서 단순히 숫자를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최근 평가담당자들은 사회의 이슈인 '빅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대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pattern)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전국대학의 모든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2008년 5월 25일 제정 ·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전국대학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대학정보공시의 목적은

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 대학 등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학술 및 정책 연구진흥과 더불어,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학정보공시는 발전을 거듭해 지난 6년이란 세월을 거쳐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학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졌다. 대학정보가 공시되면 그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우리대학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각종 대외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 그리고 각 대학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대내평가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외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분주하게 시작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현황, 강 · 약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까지 일사천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인재들이 모인 직능단체, 「전국대학평가협의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설립목적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교 평가업무 담당 팀장 및 실무자를 회원으로 하여 정보 교환, 네트워킹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회원대학 간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는 총 170여개 4년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지회, 인천 · 경기 · 강원지회, 대전 · 충청지회, 대구 · 경북지회, 광주 · 전라 · 제주지회, 부산 · 울산 · 경남지회 등 총 6개 지회로 구성 · 운영하고 있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조직 · 구성 · 운영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지역별 지회장 6인, 연구센터장 1인, 그리고 사무국장 1인 등을 임원회로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회에서는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고 있다.

본 협의회 산하 연구센터를 2012년 3월부터 재가동하면서부터 협의회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평가업무는 타 업무분야에 비해 업무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항상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시대적 · 환경적으로 필요한 전국대학의 평가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현재 총 5인의 책임연구원을 두어 전문적인 대학평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대학에서 평가, 통계,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을 각 대학에게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기 위해 '투 트랙 연구활동(Two-track Research Program : TRP)'을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연구 활동에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류(feedback)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기 계발은 물론, 회원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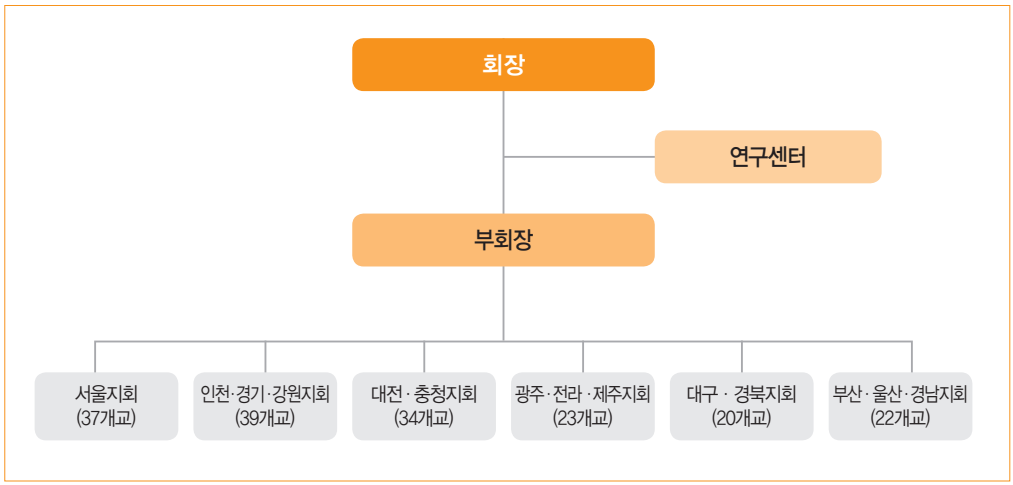

그림 1 |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조직도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주요 사업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연구와 공유를 통한 회원대학간 협력의 고도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정기 워크숍 개최

본 협의회는 대학평가,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계(5~6월), 동계(11~12월) 2회에 걸쳐 정기 워크숍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회원대학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확산시켜 나아가 회원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정기 워크숍 이외에도 평가와 관련된 주제가 생길 때마다 비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 실례로 2013년 7월에는 Elsevier사와 전국대학평가협의회가 공동으로 '국제적인 평가관련 표준안 소개 및 국내 대학의 평가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정기 워크숍 이외에도 각 지회별로 필요로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연 1회 정도 지회별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2. 투 트랙 연구사업(Two-track Research Program)

2013년부터 매년 1회에 걸쳐 회원대학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 트랙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3월에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신청받은 연구과제를 4월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5월부터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여 본 협의회 동계워크숍에서 발표하여 회원대학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2014년 연구과제 공모 주제 분야는 ① 대학구조개혁 평가, ② 대학기관평가인증, ③ 대학정보공시 또는 고등교육통계, ④ 중앙일보 대학평가, ⑤ 세계대학평가, ⑥ 대학의 전반적인 현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3. 각종 평가/통계/공시 관련 정보서비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uea.kr)를 통해 각종 대학평가,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대학들에게 각종 대학평가 결과,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평가/통계/공시업무 관련 보도기사 자료 등을 스크랩하여 공유하고 있다. 정부3.0 정보공개 정책에 맞춰 대학 현황자료의 제공자이자 활용자인 대학에게 공개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4.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학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안) 이나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대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원 대학의 주요 업무

회원 대학들의 평가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대학기관평가인증,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평가 등 정부대학(인증)평가, ② 대학자체평가, ③ 언론사 대학평가, ④ 세계대학평가, ⑤ 각종 대학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⑥ 각종 데이터 분석에 따른 발전방향 제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평가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프로세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정부 대학(인증)평가

교육부로부터 2010년 11월 고등교육기관 평가 ·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은 2011년부터 전국대학의 기관평가인증(accreditation)을 시작하였고, 각 대학은 자체진

단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기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의 세부내용에 대해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 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특성화지원사업(CK-Ⅰ, Ⅱ),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ACE사업) 등 학부교육과 관련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그리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되는 각종 정량지표에 대한 관리,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2.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제1항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2009.1.1)에 따라 각 대학의 학교 운영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여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어느덧 3주기에 걸쳐 대학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회원 대학에서는 대학자체평가를 매년 자기점검을 실시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언론사 대학평가

대학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을 종합평가하는 언론기관은 크게 2곳이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http://univ.joongang.co.kr)는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 매년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7~8월에 평가참여대학이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기관이나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조선일보는 2009년부터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와 함께 아시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대학의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말 또는 6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4. 세계대학평가

세계대학평가는 국제논문과 피인용수 등에 대한 연구중심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내에서 자주 소개되는 평가 3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2004년부터 영국의 QS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함께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다가 2008년 QS는 단독으로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THE는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QS 세계대학평가(http://www.topuniversities.com)는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자료 제출시기와 일치하고, 그 결과는 매년 9월에 발표한다. 영국 THE 세계대학평가(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는 매년 5월말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발표한다. 단, 연구관련 평가 자료는 각 대학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QS 평가는 Elsevier사 SCOPUS를, THE 평가는 Thomson Reuters사 Web of Science의 논문 DB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상해교통대는 매년 JCR(Journal Citation Report) 논문을 중심으로 세계대학평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http://shanghairanking.com)를 진행하고 있다.

5. 대학정보공시 및 각종 대학통계

평가업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통계와 공시업무이다. 이 업무의 담당자들은 각 대학의 현황 DB를 생산하고 확인 · 검증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의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8개 항목관리기관의 자료를 직 · 간접 연계한 자료가 매년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6. 각종 데이터 분석에 따른 발전방향 제안

2008년부터 시행된 대학정보공시로 인해 대학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한 각 대학의 현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외적인 업무같기도 하지만, 그 만큼 데이터를 보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학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필자소개

신재영 | 중앙대학교 기획처 평가팀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를, 동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 지도·감독소위원회 위원(2012~2013)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정기관 지도 · 감독소위원회 위원(2013~2015),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회장(2013~현재), 그리고 중앙대학교 기획처 평가팀장(2011~현재)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학자체평가 실무자료집(심화)」(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집필진, 2011.7), 「2013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집필진, 2013.12)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내 및 세계대학평가, 기관평가인증, 대학자체평가, 성과평가,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등이다.